

처절한 수해현장... 불자들이 '구호활동 앞장 구슬땀'



◇정도회원들이 4일 강릉시 내곡동에서 붕괴될 위험에 처한 축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수고덕택에 침수피해를 당한 독거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주요종단·사찰 등 불교계 각계에서 최의의 수해를 당한 수재민을 위한 모금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연천 향지모임 박미영총무가 6일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에게 회원들이 모은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모습.

태풍이 끝난 직후인 3일 정도회 회원과 불자들이 찾은 강릉은 완전한 고향상태에 빠져 있었다. 도시 전체가 단진, 단수 상태에 있었고, 토사가 범람해 온 도시가 누런빛을 띠고 있었다. 도망에 종이처럼 구겨져 처박혀 있는 경운기와 자동차, 누런 모래가 덮여 버린 논밭 등은 수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장현 저수지 밑 동네는 마을 진입로만 간신히 남았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한쪽이 주저앉은 농가가 사나운 물살이 흘리고 간 자갈밭 위에 쓰러져 있었고 쓰레기 더미로 전락해 버린 장롱, 옷가지, 전자제품 등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정도회 불자 40여명은 강릉시 저소득 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내곡동을 찾아가 수해 복구에 팔방출을 펼쳤다. 내곡동은 집중폭우로 불어난 물이 남대천으로 빠지지 못하고 역류,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곳.

그나마 없는 독거노인들의 살림에 흉수 피해까지 당한 것을 확인하자 정도회원들은 두 손을 겹쳐보이고

모든 작업은 손으로 이뤄져야만 했다. 마대 자루에 쏟아져 내린 흙더미를 달아 쌓아올리기를 2시간. 정도회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울랐지만 축대 붕괴로 무너질 뻔한 집이 위기를 넘기자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내가 머리에 머리띠를 난 후 이런 난리는 처음 본다"는 김정순(62) 씨는 "집안 복구보다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다"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또한 최말일(76) 할머니는 "평생 동안 이토록 심한 경우를 당한 것도 드문데 불자들이 멀리서 찾아와 도와주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 거렸다.

4일 진각복지재단과 비로자나 청년회 소속 10여 명의 불자들이 찾은 삼척시 남양동은 더욱 처참한 상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도시 외곽지역이라 수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혀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진각복지재단 소속 불자들은 우선 시급한 생수와 라면, 김치 등 생필품 공급에 주력했다. 6일까지 남양동에 머물며 불자들은 노인들 혼자서는 엄두도 못내던 침수가옥 진출제, 가재도구 청소, 쓰레기 수거 등에도 열성을 다했다.

한편 직지천 범람으로 수해를 당한 김천 지역에서는 김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직지사스님, 구미 금오종합복지관이 꾸린 긴급구조단이 활약했다.

한반도를 휩쓸고 간 제15호 태풍 루사는 6일 전국적으로 사망 120명, 실종 27명의 인명피해와 4조 2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중 강원도 강릉 일대와 경남 김해, 경북 김천, 전북 무주 등은 집중폭우로 인한 신사태 등으로 치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재해가 심각하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일년 농사를 망쳐버린 수재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전해지자 불교계에서는 정토회, 진각복지재단, 비로자나 청년회, 김천사암연합회, 금오종합복지관 소속 불자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2일 수해소식을 들은 즉시 구미 금오복지관 자원봉사팀은 떠나할 것 없이 복지관으로 모여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휴방들이 휩쓸고 간 선산 슬레리 일대 농지에 남은 것은 모래와 자갈 그리고 베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 뿐.

하지만 마냥 손을 놓을 수 없기에 불자들이 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데 모여 진흙더미에 파묻힌 가재도구를 물에 씻어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방대한 지역에 걸쳐 1년 동안 재배해온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자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천사암연합회는 침수를 당한 김천시장 상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에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급식이지만 1시간여 전부터 이미 식당 안은 끼니를 거른 시장 인근 수재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태.

직지사 스님들도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무료급식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일찍 김천시내 수해현장을 돌아본 직지사 주지 법성스님은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를 위해 본말사 스님회의를 긴급 소집, 수해복구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김천지역 신도 대부분이 수재민이 된 상황이 스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

스님들은 수해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먹을 물이라는 생각에 급수차를 구해 김천시내 식수공급에 나섰다. 본말사 스님 20여명이 조를 짜 하루 종일 3~4대의 급수차로 시내 여러 곳에 물을 배달했다. 스님들은 수도가 복구될 때까지 식수공급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직지사스님들은 6일 이불, 가스렌지, 가스 등 수재용품들을 모아 김천시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 살아갈 생각에 막막했던 주민들은 전국에서 답지해 온 성원에 일었던 웃음을 서서히 되찾고 있었다.

강릉=강유신, 김천=박원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보물 87,88호인 신복사지 삼층석탑과 석불상이 밀려든 토사에 갇혀있다.



◇속초 월해사는 대웅전(사진)과 문전, 삼성각 등이 수해로 파괴됐다.



◇신라말 고승 범일스님 탄생설화를 간직한 굴산사지 석천(石泉·점심완안이 이번 수해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세탁·축대보수·휴포대 쌓기에 운힘 식품·의류 공급...중장비 없어 발 "동동" 스님들 구조단 구성, 식수·급식 지원

수해복구에 동참했다. 냉장고, 텔레비전이 진흙에 뒤범벅이 되어 실려나오고 옷가지와 가재도구들이 하나씩 나오자 수재의 침상이 조급해 드러났다.

정도회원들은 임시로 입을 옷을 세탁하는 일도 적극 거들었다. 단수가 돼 지하수를 끌어올려 만든 공동빨래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빨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올라왔다. 하지만 시커멓게 된 빨래들이 제 색깔을 되찾아감에 따라 주민들과 정도회원들은 오히려 피곤한 줄을 몰랐다.

포괄보살한 뒷골목은 언제 담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 정도회원들은 간신히 서있는 축대의 응급 복구 작업도 서둘렀다. 중장비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일 진각복지재단과 비로자나 청년회 소속 10여 명의 불자들이 찾은 삼척시 남양동은 더욱 처참한 상태.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도시 외곽지역이라 수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혀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진각복지재단 소속 불자들은 우선 시급한 생수와 라면, 김치 등 생필품 공급에 주력했다. 6일까지 남양동에 머물며 불자들은 노인들 혼자서는 엄두도 못내던 침수가옥 진출제, 가재도구 청소, 쓰레기 수거 등에도 열성을 다했다.

한편 직지천 범람으로 수해를 당한 김천 지역에서는 김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직지사스님, 구미 금오종합복지관이 꾸린 긴급구조단이 활약했다.

전국사찰 64·문화재 16건 피해

월해사·실상사 백장암 완파, 굴산사지 석천 유실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 64곳 사찰의 당우가 무너지거나 진입로가 유실되고, 매몰되는 등 불교문화재 피해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현재 본지가 집계한 피해사찰은 64곳. 조계종은 교구별로 보면 신홍사 11곳, 월정사 10곳, 해인사 9곳, 은해사 2곳, 직지사 2곳, 광개사 3곳, 통도사 1곳, 금산사 1곳, 선운사 4곳, 백양사 1곳, 대둔사 1곳, 화엄사 1곳(사적 통화불봉), 송광사 2곳, 법주사 1곳 등이며, 태고종은 제주 용문사 등 3곳, 여타종단 1곳, 사지 2곳 등이다. 이들 사찰의 피해현황은 진입로 유실과 축대붕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은 속초 월해사와 남원 실상사 백장암. 월해사는 뒷산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관음전과 요사채, 삼성각이 완파되고, 지장전과 대웅전이 반파되는 등 총 2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폐사 위기에 처했다. 또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선방은 기둥만 남은 채 무너졌으며, 약사전 지붕이 뒤집히고, 요사채와 후원도 반파돼 총 피해액이 8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비구니 강원으로 유명한 김천 창암사는 종각 아랫부분과 축대 등이 물살에 깊이 패어 붕괴위험에 처해 있으며, 전봇대 등이 50주 이상 쓰러지고 진입로 교각이 유실됐으며 전화, 전기, 수도가 모두 끊긴 상태이다.

신라말 고승 범일국사의 탄생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강릉지역 대표적 불교유적 굴산사지 석천(石泉)도 토사에 매몰됐다. 신복사지 석불좌상(보물 제54호) 3층 석탑(보물 제87호)이 토사에 매몰되고 전북 익산 미륵사터(사적 150호)가 일부 유실되는 등 전국에서 모두 16건에 이르는 불교문화재가 피해를 당했다.

8월31일 불어난 물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강릉 성원사 동월 스님이 다행히 구조돼 병원치료 중이며, 속초 창통사 스님 두 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생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원우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경년기 장애
- 배가 약이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